

# 안방 선수층 더 두껍게...KIA, 백업 포수 '무한 경쟁' 예고

김태군과 3년 25억 계약...안방 지킬 주전포수 확보  
한준수·한승택·이상준 등 백업 포수 후보로 거론

KIA 타이거즈 백업 포수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KIA는 지난 10월 2023시즌이 끝난 뒤 프리 에이전트(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예정이던 포수 김태군과 계약기간 3년, 총액 25억 원에 계약했다. 김태군을 붙잡는 데 성공하며 안방을 지킬 주전 포수를 확보했다. 시즌은 KIA의 포수진 댁스(선수층)로 향한다. 아직 김태군의 뒤를 받칠 확실한 자원이 없다. 백업 포수 발굴이 이번 비시즌에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날 진행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신병수가 SSG 랜더스로 이적했으나 여전히 포수진에는 기대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한준수, 한

승택, 주효상, 김선우에 신인 이상준까지 백업 포수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다. 가장 눈에 띄는 자원은 2018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 출신인 한준수다. 입단 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한준수는 올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퓨처스(2군)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 뒤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장 기회를 얻었다. 48경기에서 타율 0.256 2홈런 12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84를 기록했다. 한준수가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 있는 모양새지만 자리가 보장된 건 아니다. 1군에서만 593경기를 소화한 베테랑 한승택도 백업 포수 자리를 노린다. 한승택은 올해

49경기에 출전하며 포수 중에서 김태군 다음으로 많은 경기에 나섰다. 타격은 떨어지지만 수비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4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지명된 이상준도 눈길을 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U-18 야구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이상준은 강한 어깨와 장타력을 갖춘 공수겸장 포수다. 심재학 KIA 단장은 이상준에 대해 "대형 포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 2루 송구 능력이 프로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좋은 송구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비 능력을 키운다면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KIA는 지난달에 종료된 마무리 캠프에 나가 무라 다케시 전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 배터리 코치를 인스트럭터로 초빙해 포수진의 기량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준수, 한승택, 이상준이 마무리 캠프에 참



가해 포수 출신인 전감독 수석코치, 김상훈 배터리코치, 다케시 인스트럭터의 지도를 받으며 내년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슬비기자

## 소크라테스 협상·파노니 고민...KIA, 새 시즌 외인 구성은



소크라테스 브리도  
내년 시즌 비상을 노리는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는 KIA의 선택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 KIA는 2년 차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토마스 파노니  
브리도, 새로운 외국인 투수 손 앤더슨, 아도니스 메디나와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2명의 투수 모두 시즌 완주에 실패했다. 기대 이하였던 앤더슨(4승 7패 평균자책점 3.76)과 부진에 시달린 메디나(2승 6패 평균자책점 6.05)는 각

각 7월, 6월에 짐을 썼다. 이후 지난해 KIA에서 뛰었던 토마스 파노니가 올해도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합류했다. 메디나의 빈자리를 채운 건 처음 KBO리그에 입성한 마리오 산체스였다. 파노니는 16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평균자책점 4.26의 성적을 냈고, 산체스는 12경기에서 4승 4패 평균자책점 5.94를 작성했다. 시즌이 끝난 뒤 KIA는 다음 시즌 재계약 대상자를 의미하는 보류선수 명단에 소크라테스와 파노니를 등록했다. 전력 외 선수로 분류된 산체스는 제외됐다. 2022년부터 KIA에서 뛴 소크라테스는 통산 269경기 타율 0.298 37홈런 173타점 27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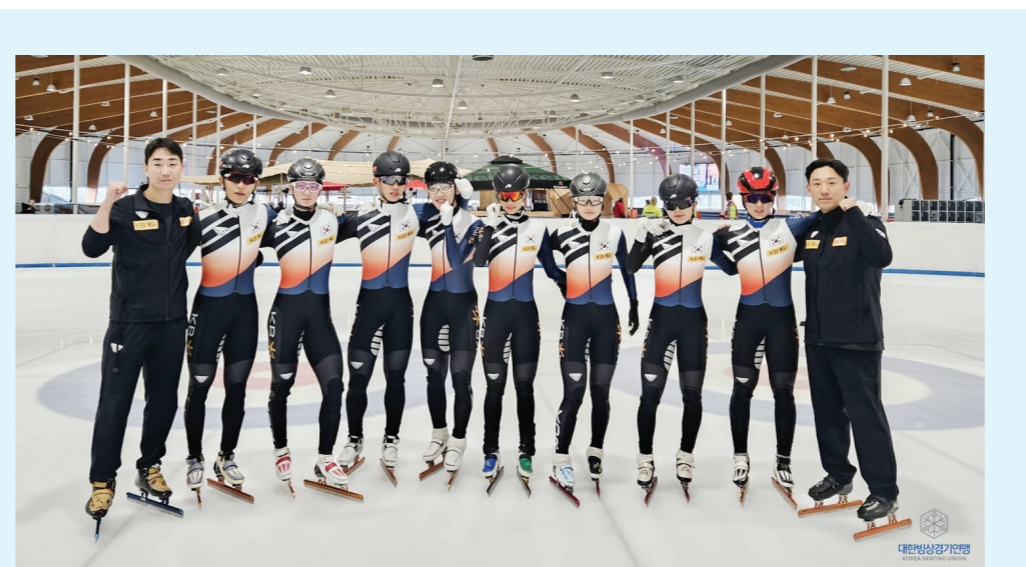
## 소크라테스·파노니, 보류선수 명단 포함...산체스 제외 KIA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선수 데려온다는 보장 없다"

루 OPS(출루율+장타율) 0.827를 기록했다. 올해는 14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5 20홈런 96타점 15도루 OPS 0.807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 생산력은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성적은 준수했다. KIA는 소크라테스와 3년 연속 동행을 원하고 있다. KIA 구단 관계자는 "소크라테스와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 검증된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선수를 데려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KIA는 최근 두 시즌 동안 효과를 보지 못했던 외국인 선발 투수 자리에 고민이 깊다. 앤더슨, 메디나뿐 아니라 2022년에 몸담았던 선

린과 로니 윌리엄스도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 놀린은 부상 여파로 21경기 등판에 머물렀고, 로니는 평균자책점 5.89에 그쳤다. 파노니 역시 재계약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얼굴들로 외국인 투수진을 꾸릴 수도 있다. KIA는 우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한다. 메이저리그 각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들이 모이는 월터미팅(12월5-8일)이 끝난 뒤 외국인 투수 영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KIA 구단 관계자는 "어떤 선택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 후보군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피드 주니어 대표팀 2023-24시즌.



쇼트트랙 주니어 대표팀 2023-24시즌.



## 'KBO리그 MVP' 페디, MLB 복귀...시카고와 2년 197억

2023시즌 KBO리그를 지배했던 오른손 투수 에릭 페디(30)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복귀한다. MLB닷컴은 6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페디와 계약기간 2년, 1500만 달러(약 196억9000만원)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페디는 올해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를 누볐다. 30경기에서 20승6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하고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209개)을 석권하는 투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압도적인 성적을 낸 페디는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도 뽑혔다.

## KBO리그 MVP 돌아오나... KT "로하스와 계약 논의 중"

전성기를 맞은 로하스는 2021시즌을 앞두고 일본프로야구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그러나 한신 타이거즈 소속으로 2시즌 동안 통산 149경기 타율 0.220, 17홈런 48타점에 그치지 못했다. 올해는 멕시코 리그와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었다. 최근 영상을 확인한 KT 구단은 로하스가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우선 외국인 타자 후보로 올려두고 계약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함께했던 외국인 타자 앤서니 알포드와는 밀착감지 이별이 결정됐다. 알포드는 2023시즌 정규시즌 133경기에서 타율 0.289, 15홈런 70타점을 기록했지만 수비 등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KT는 지난날 보류 선수(재계약 대상자) 명단에서 알포드를 제외했다. KT는 이외에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와 웨스 벤자민과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 빙속·쇼트트랙 미래 밝다...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 맹위

빙속, 월드컵 2차 대회 금 4·은 4·동 5개 쇼트트랙, 2차 대회 금 7개·은 2·동 2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유망주들이 국제 무대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6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이탈리아 폴라보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15-18세) 스피드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3일 남자 1000m 종목 구경민(관공고)은 남자 1000m 종목에서 1분11초76로 출전 선수 61명 중 1위에 올랐다. 같은 날 열린 네오 시니어(19-23세) 남자 1000m 종목에서는 김경래(정명부시청)가 1분13초41로 출전 선수 25명 중 1위를 차지했다. 4일 열린 여자 500m 종목에서는 정희단

(선사고)이 39초33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네오 시니어 남자 500m 종목에서는 오상훈(고려대)이 36초09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쇼트트랙 주니어 대표팀도 선전했다. 지난 2일과 3일 네덜란드 레이와르던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개인 종목 금메달 8개 중 6개를 땀다. 유수민(이목중)이 첫날 여자 1500m에서,

임종연(노원고)이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신동민(반포고)이 우승했다. 둘째 날에는 남자 1000m에서 한병찬(대광고),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유수민,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신동민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단체전에서도 여자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땀다. 쇼트트랙 주니어 대표팀은 금메달 7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뉴스

## 유남규 딸 유예린, 세계 청소년 탁구 대회 '은메달'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 유스 챔피언십

한국 탁구의 전설적인 선수 유남규 한국거래소 감독의 딸 유예린(부친 소사중)이 세계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일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유예린은 지난 4일(한국시간)까지 슬로베니아 노바고리차에서 열린 '2023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 유스 챔피언십' 여자 단식 15세 이하 종목에서 준우승했다. 32강전과 16강전에서 독일과 알제리 선수를 꺾은 뒤 이어진 순위전에서 연속으로 아시아 강호들을 꺾었다. 8강전에서는 중국의 덩위지예를 4-1(11-6 11-4 7-11 11-8 11-8), 4강

전에서는 대만의 우지아옌을 4-2(8-11 11-7 11-7 9-11 11-9 11-7)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유예린은 결승전에서 일본 에이스 유나 오지오에 0-4(8-11 7-11 5-11 2-11)로 패하고 말았다. 유나 오지오는 이번 대회 15세 이하 종목에서 단식은 물론 개인복식과 혼합복식, 단체전까지 모두 우승한 강자다. 협회는 "유예린으로서는 우승 후보들을 연파하고 결승전 초반까지도 호각세를 벌이며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선전"이라며 "최종전에서 아쉽게 패했으나 이번 대회 출전 한국 선수들 중 개인 단식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경기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유 감독은 1986년 서울아시아인예과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설적인 선수다. 8살 때 탁구에 입문한 유예린은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 제2의 신유비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08년 생인 유예린은 지난해 만 16세 미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2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유스 컨텐더 베를린' 15세 이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아오키 사치(일본)를 누르고 첫 우승을 달성했다. 유예린 외 다른 선수들은 이번 대회 단식에서 입상하지 못했다. 19세 이하에서는 남자 오준성(미래에셋증권)과 여자 박가현(대한항공)이 8강에 그쳤다. 오준성은 16강전에서 일본 라이벌 마츠시마 소라를 꺾었지만 8강전에서 이번 대회 우승자 린시퉁(중국)에게 패했다. 유럽 선수들을 누르



고 8강에 올랐던 박가현은 이번 대회 준우승자인 루마니아의 엘레나 자하리아에게 패했다. 15세 이하 남자 단식에서는 이승수(대전 동문초)가 선전했다. 이승수는 미국과 인도의 복병들을 누르고 8강까지 올랐다. 8강전에서는 중국의 왕지슈안에게 0-4(6-11 6-11 2-11 9-11)로 졌다. 뉴스